



3면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 대통령 될 것"

전주매일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음 5월 9일) 제28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내달 5일부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오늘 전북 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 개최

코로나19 극복...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21일 기준 도내 주소 둔 모든 도민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수령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오는 7월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다.

전북도는 21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에게 다음달 5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전북도는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방법을 찾기 위해 각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단계에서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급기준일 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21일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한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도민이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도민 편의 중심의 행정이 진행된다.

우선,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의 경우는 신청현장의 혼잡 방지를 위해 인구가 많은 시·군 단위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가 채택했으며, 그 외 군 단위 지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

다.(무주군의 경우 마을담당관 일제출장을 통한 지급)

도민의 편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과 이·통장이 현장 신청과 교부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 토, 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로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장을 통한 봉반 및 아파트, 직장 사업체 등에 '선불카드 신청서'를 미리 배부해 작성한 후 읍·면·동 방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과 신청서류 간소화 방안으로써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지급명부에 서명 후 즉시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특히, 직장인 맞춤형이 부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상황도 감안해 각 시·군이 지역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연장신청, 지급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 제한을 뒀 지역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뒀고, 사용기한 역시 시·군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2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시·군으로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사용절차는 시·군별로 여건에 맞는 방법을 채택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시·군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와 제약된 일상을 이겨내고 있는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전하기 위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급되는 만큼 우리 서민경제와 도 전체 경제가 진일보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 태권도계의 일대 산맥인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과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리용선)이 스포츠 태권도의 발전방향과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무주 태권도원(상징지구 명인관·일여헌)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One World One Sport Taekwondo 라는 주제로 WT와 ITF 회원국 관계자를 비롯해 태권도 및 체육학계 교수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 태권도의 역할과 발전방향, WT와 ITF의 융합 가능성 등 태권도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태권도의 운동역학과 운동방식 등 태권도에 대한 기초 지식 등을 정립해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된 태권도' 지향을 실현하고, 정보 교류의 장과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18~59세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받는다 | 전북도, 정부 3분기 접종 계획 따라 50대 내달 26일 · 40대 이하 8월부터

전북도가 최대한 많은 도민이 신속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17일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전 도민의 70%인 126만명 이상에게 1회 이상 접종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3분기 접종은 2분기까지 진행된 60세 이상 고령층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치료기관, 보건요원 등 기접종자를 제외한 18~5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7월부터 시행할 3분기 접종 대상별 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19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74세 접종대상자 등은 7월 초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상반기 접종대상 중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6월 미접종자도 사전
-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17,475명)과 고등학교 교직원(17,475명)은 예방접종 동의자에 대해 7월 19일 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3 이외 대입수험생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등록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해 실시한다.
- ▲50대 장년층: 50대 장년층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7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55~59세부터 시작해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예약

을 실시할 계획이다.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접종 및 접종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체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지자체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필수인력, 고위험군 등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종사자 접종편의를 위해 철강·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중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은 사업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접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COV) 또는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바일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모바일 앱 COV를 휴대폰에 다운로드해 등록이 가능하며,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정부24(https://www.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기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도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전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희망의회!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가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